발 간 사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기록물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가운데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해설한 『일제문서 해제집』,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 등을 발간해 전국의 대학과 도서관,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다룬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경제 · 산업 · 복지 · 교통 편)을 연차별로 발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번째로, 교육 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교육 편에는 1940~2000년대까지 추진된 교육정책을 4개의 주제 영역으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관련 기록물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제1장은 교육제도와 교육개혁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정부수립 직후 제정된 「교육법」을 비롯해 「교육세법」, 「교육기본법」 등 교육법령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관련 각종 위원회와 중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제2장은 초·중등교육의 흐름을 다루었습니다. 1950년대 의무교육체제의 확립, 초·중등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교육 환경 등의 전반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광복 이후 고등교육의 기반 조성, 정비, 확충, 개혁을 시대흐름에 따라 소개하였으며, 「대학설치기준령」, 「대학입학예비고사령」,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제4장은 평생교육 · 유아교육 · 특수교육을 다루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교육복지의 개념이 일반화되자, 이들 교육이 중요 범주로 설정되었고 정책적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1950년대부터 추진된 '성인교육과 문맹 퇴치', '사설학원', '산업체학교' 등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사회교육법」의 제정, 개방대학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분야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을 발간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설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필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국가기록원장 **이 소 연**